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695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8년 8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논문

에이미 텐의 『조이럭 클럽』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임 지 현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이미 텐의 『조이럭 클럽』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in Amy Tan's *The Joy Luck Club*

201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임 지 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이미 텐의 『조이럭 클럽』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지도교수 이 정 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임 지 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임지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차 희 정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경 규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정 화 (인)

201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i

I. 서론 ---------- 1

II. 모녀 간의 갈등과 새로운 정체성 찾기 ---- 6

1. 쑤얀 우와 징메이 쥰 우 ---------- 6

2. 린도 종과 웨이벌리 종 ---------- 16

3. 안메이 슈와 로즈 슈 조던 ---------- 29

4. 잉잉 세인트 클레어와 리나 세인트 클레어 ---- 36

III. 결론 ---------- 46

인용문헌 ---------- 4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in Amy Tan's *The Joy Luck Club*

Im, Ji Hyeon
Advisor : Prof. Jung-Hwa Lee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in Amy Tan's *The Joy Luck Club*(1989), focusing on the emergence of changeable and dynamic Chinese American female identities. Jing-mei comes to understand her mother's dream for her by realizing the changeable nature of the jade necklace and joining Joy Luck Club both of which are the mother's legacies ranging across two cultures. Wayverly suggests that her "two-faced" identity disrupts cultural stereotypes of Chinese Americans, discovering that her "tricky" identity has been handed down from her mother. On the other hand, Rose come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speaking out with the help of her mother. Finally, Lena embraces her mother's "tiger spirit" that defies patriarchal gender stereotypes. In *The Joy Luck Club*, the mothers facilitate the daughters' inventions of dynamic identity by remembering the painful past, sharing their stories, and entrusting the daughters with the task to create their own identiti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 서 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가족 공동체의 모녀 관계 속에서 세대간의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모녀간의 갈등과 화해를 배경으로 한 소설과 영화들이 많이 있다. 에이미 텐(Amy Tan)의 『조이럭 클럽』(*The Joy Luck Club*, 1989)은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 1세대인 네 명의 어머니들과 미국에서 출생한 이민 2세대인 네 딸들의 세대갈등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문화의 충돌과 수용을 소재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이미 텐의 『조이럭 클럽』[1)]에 나타난 네 쌍의 모녀관계의 특징과 2세대인 딸들이 미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정체성의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쑤얀 우(Suyuan Woo)와 징메이 쥰 우(Jing-mei "June" Woo), 린도 종(Lindo Jong)과 웨이벌리 종(Waverly Jong), 안메이 슈(An-mei Hsu)와 로즈 슈 조던 (Rose Hsu Jordan), 잉잉 세인트 클레어(Ying-ying St. Clair)와 리나 세인트 클레어(Lena St. Clair)의 네 모녀관계의 특징에서는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며, 딸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살펴보겠다.

『조이럭 클럽』에서 이민 1세대 어머니들은 각자 다른 과거를 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딸들에게 바라는 염원은 어머니와 딸들의 네 개의 이야기 중 맨 처음 이야기의 서문인 "천리를 건너온 깃털"(Feathers From a Thousand Li Away)의 우화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우화에서 노부인은 상하이에서 "거위가 되고 싶어서 목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이"(17) 백조가 되어버린 원래는 오리였던 백조를 한 마리 샀다. 노부인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에게는 "깃털" 하나만 남게 된다. 노부인은 늙었고, 딸에게 "이것은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멀리서부터 나의 소중한 꿈을 담아 가지고 온 것이란다"라고 영어로 말하며 깃털을 전해 줄 날만을 기다렸다(17). 어머니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사회적

1) 본 논문에서 『조이럭 클럽』의 한국어 번역은 박봉희(문학사상사)의 번역을 따르되, 문학사상사의 번역본에서 대화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꺽쇠 표시는 큰 따옴표로 대체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 차별과 제약을 넘어선 곳에서 머나먼 여정을 지나온 깃털의 역동적인 힘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딸들이 전해받기를 원한다. 또한 여러 다인종과 다문화가 교류하는 미국사회에서 딸들이 어머니가 전수한 중국문화의 유산을 잘 활용하여 주류 백인들의 편견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정체성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것은 바로 딸들이 어머니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깃털이 나타내는 변화무쌍한 역동성과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성, 그리고 창조적 변화의 가능성이 『조이럭 클럽』에 등장하는 여성 이민자들의 정체성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 소설이 묘사하는 모녀관계는 이민자 1세대 어머니들과 2세대 딸들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보다 보편적인 모녀갈등보다 역사적 구체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어머니들의 소망과 딸들의 오해, 그리고 모녀갈등의 해소를 아시아계 미국 여성들이 겪은 편견과 차별의 맥락에서 살필 것이다. 나아가, 딸들이 어떻게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체성을 창조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깃털의 변화무쌍함과 창조적 역동성을 실현하는지 알아보겠다.

아시아계 미국문학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의 주류인 백인들로부터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각 나라별 인종적 정형화를 통한 차별을 받아왔지만 1960년대 반체제 운동과 맞물리면서 그들의 글쓰기는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아시아계 미국문학은 미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의 정전 문학에서 다문화, 다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1974년에 발간된 『아이이!』(*Aiiieeeee!*)의 편집자인 프랭크 친(Frank Chin), 제프리 폴 챈(Jeffery Paul Chan), 로슨 푸사오 이나다(Lawson Fusao Inada), 숀 츄 왕(Shawn Hsu Wong)은 이 책의 서문에서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특수한 감수성과 문화적 각성을 공개적으로 천명"(윤성호 94)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조이럭 클럽』이 쓰여진 1980년대까지 여성과 소수인종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이 대거 출현하였고 맥신 홍 킹스턴(Maxine Hong Kingston)과 에이미 텐과 같은 아시아계 미국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은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킹스턴과 텐과 같은 아시아계 여성 작가들은 작품에서 미국사회에서 소수인종 여성들이 겪는 인종과 젠더의 이중적인 억압과 차별을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내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티브(narrative)형식을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제분은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에서 트린 민하(Trinh T Minh-ha)가 "체험에 근거한 이들의 글쓰기가 역사에서 배제되어온 사실들을 말하는 글쓰기"(21)임을 지적하였다고 한다. 권혁경과 임진희는 『조이럭 클럽』에서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억으로서 이후 세대들의 정체성의 근원을 형성한다"(264)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민 1세대 여성들이 미국사회 내에서 유색 인종의 차별과 언어적 장벽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2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체험과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후손들이 다양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미국인이 될 수 있는 방향성 제시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자라나 중국적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이민 1세대 어머니들 세대와 가정에서는 중국 어머니의 양육을 받지만 미국의 사회 제도와 문화 안에서 성장해온 2세대 딸들은 각각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대 상호간의 의사소통에서 혼란을 겪는다. 이소희가 설명하듯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상황에서 조차 모든 기표(signifier)들은 그것이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재현될 수 있는가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조이럭』 107).

『조이럭 클럽』의 네 모녀들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아픈 과거사를 전해들은 딸들은 결국 어머니들의 염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되면서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고 현실생활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계 어머니들의 염원을 담은 "깃털"이 갖는 변화 가능한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미국인 딸들이 주체적인 미국여성으로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주류 백인 남성과 백인 사회를 향해 주장하게 되는 변화의 과정을 살펴본다.

이제까지 『조이럭 클럽』의 선행연구에서는 딸 세대의 중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뿌리찾기"와 "뿌리로의 회귀"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모녀관계와 정체성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박혜리와 강영아, 김가희와 황정희의 논문등이 있다. 박혜리는 「에이미 탄의『조이럭 클럽』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어머니세대의 정체성을 중심으로」에서 어머니 세대의 관점으로 모녀 사이의 소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박혜리는 "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머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부터 물려받은 정체성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민족적 특징"(46)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딸들이 찾아 갈 본질주의적 정체성을 암시"(47)한다고 하였다. 정재은은 「『조이럭 클럽』의 모녀관계 재정립과 정체성 탐색」에서 "무시되고 침묵 당했던 여성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 확립의 길을 가고 있는지"(15)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 강영아는 「중국계 미국여성의 모녀관계를 통한 정체성 형성: 킹스턴의 『여전사』와 탠의 『조이럭 클럽』을 중심으로」에서 중국계 미국여성인 딸들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민족 문화 유산을 수용하고 혼종적 정체성을 형성"(7)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가희는 「중국계 미국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 『조이 럭 클럽』,『여행 왕 손오공: 그의 악보집』, 『전쟁쓰레기』를 중심으로」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미국은 "미국도 아시아도 아닌 제3의 공간"(95)을 뜻한다고 한다.

이들 연구와는 달리, 이소희는 「『조이럭 클럽』연구: 문화적 번역 매개체로서의 자연을 중심으로」에서 모녀관계를 "문화적 번역 매개체"로 해석하고 있다. 이소희는 텐이 "중국과 미국의 상상적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그 둘을 꿰뚫는 "미국적인 상황과 중국적인 특질"로서 모녀들 사이의 여성적인 연대와 힘을 강화"(『조이럭』124)하였다고 주장한다. 작품 속 주인공들의 "문화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박용준은 텐이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수용하되 차이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단순화된 정형화에 저항하고 자신들이 가진 복합적인 자아 정체성과 문화들을 제시하고 전수하는 역할"(80)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성수와 정명희는 「에이미 텐의 조이럭 클럽: '저항'의 텍스트로 읽기」에서 『조이럭 클럽』의 내러티브 구성의 특징과 언어, 내용을 분석하고 텐의 작품을 획일성을 강조한 미국 문화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저항의 몸짓"(48)으로 해석하였다. 비판적인 해석으로는 이기한과 김민정이 있다. 이기한과 김민정은『아이이!』의 편집자인 친을 비롯한 일군의 비평가들의 비판을 인용하여 작품속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적 요소와 문화의 단순화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조이럭 클럽』에 등장하는 네 쌍의 모녀가 두 문화권의 경계 상에서 중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자신들이 현재 발 딛고 있는 공간을 "항상 새롭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소희, 「호미」 109)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분석해 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즉, 네 모녀가 미국이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현실에서의 갈등과 중국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미국여성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볼 것이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딸 징메이가 어머니 쑤얀의 염원을 잘못 이해하면서 생긴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과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린도와 웨이벌리에 관한 두 번째 장에서는 징메이처럼 어머니와 갈등하면서도 린도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웨이벌리의 정체성 찾기에 대해 살펴보고, 안메이와 로즈에 관한 세 번째 장에서는 안메이가 어떤 방식으로 로즈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여 결혼생활에 닥친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겠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잉잉 세인트 클레어(Ying-ying St. Clair)와 리나 세인트 클레어(Lena St. Clair)가 어떻게 자신들의 “호랑이 기질”(tiger spirit, 252)을 되찾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I. 모녀간의 갈등과 새로운 정체성 찾기

1. 쑤얀 우와 징메이 쥰 우: 어머니의 염원과 미국적인 가치의 충돌

『조이럭 클럽』에서 1세대 미국 이민자인 쑤얀은 2차 세계대전 중 중국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쟁에 국민군 장교로 참전한 남편을 찾아 충칭으로 피난을 가던 중 쌍둥이 딸을 잃어버리고 만다. 잃어버린 두 딸을 찾고 싶은 소망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건너온 쑤얀은 캐닝 우(Canning Woo)와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징메이를 낳는다. 쑤얀은 중국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 남편과 두 딸을 전쟁에서 잃는 비극을 겪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낳은 딸만은 자신이 당한 비통함이나 배고픔을 겪게 하지 않게 할 뿐더러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겠노라고 꿈꾼다. 이것은 비단 쑤얀의 희망만은 아니며 중국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미국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 태평양을 건너온 모든 이민 1세대 어머니들의 꿈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소망을 텐은 4장으로 구성된 작품의 1장 서문에 담아 “천리를 건너온 깃털”(17)이라는 우화로 서두를 시작한다. 한 노부인이 상해에서 백조가 된 거위 한 마리를 사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간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딸을 낳고 그 딸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자신의 염원을 백조에게 속삭인다.

미국에 가면 나는 나를 꼭 닮은 딸을 낳을 테야. 거기선 여자의 값어치를 남편의 트림 소리 크기로 따질 만큼 하찮게 볼 사람은 없겠지. 미국에선 아무도 그애를 얕보지 않을 거야. 그애가 완벽한 영어만을 말하게 만들테니까. 그리고 그애를 항상 배부르게 해주고 어떤 슬픔도 맛보지 않게 해주겠어. 그애는 내 뜻을 알겠지. 내가 이 백조를, 제가 바라던 그 이상으로 소원을 성취한 이 백조를 그애에게 줄테니까.

In America I will have a daughter just like me. But over there nobody will say her worth is measured by the loudness of her husband’s belch. Over there nobody will look down on her, because I will make her speak only perfect American English. And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over there she will always be too full to swallow any sorrow! She will know my meaning, because I will give her this swan—a creature that become more than what was hoped for. (17)

노부인은 미국이란 곳을 성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인식하고, 그곳에서는 "무엇이든지 되고 싶은 것은 다될 수"(132) 있다고 믿고 자신의 딸을 낳아서 그 딸이 훌륭한 환경에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성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딸이 어머니의 모든 뜻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노부인이 모든 희망을 걸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 노부인은 이민국 직원에게 백조를 빼앗기고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자신이 왜 미국에 건너왔는지를 잊고만다. 다행히 백조의 깃털 하나만 그녀에게 남겨졌다. 백조의 날개에서 빠진 깃털은 가벼워서 날아다니며 깃털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기에 노부인에게 남겨진 것이다. 노부인은 자신의 딸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갖는 깃털과 같은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바라면서 "소중한 꿈"(17)의 한 부분인 깃털을 딸에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를 기다렸다.

노부인의 소망처럼 쑤얀은 미국에서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징메이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당당한 미국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염원과는 상반되게 징메이는 어머니의 훈육을 자신을 간섭하고 구속하는 잔소리로 여기고, 그것에서 탈출하기를 원하고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으로써 저항한다. 급기야 쑤얀은 징메이가 원하지도 않는 피아노 연습을 시켜서 재능 잔치에 내보내게 되지만, 결국 징메이는 피아노 연주에 실패하고 만다. 재능 잔치에서 피아노 연주를 망친 징메이는 실망한 어머니가 더 이상은 피아노 연습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피아노를 치라는 어머니의 요구에 심하게 반발한다. 자신은 어머니의 노예가 아니며, 이곳은 중국이 아니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가 재능 잔치에서 망신을 당한 일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어리석은 분이라고 생각한다(141). 징메이는 중국과 어머니를 동일시하며 어리석다고 단정짓고 피아노 치기를 거부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교육을 받은 징메이에게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가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을 중국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징메이가 쑤얀이 사람의 성질에 대해 중국적인 방식으로 설명한 것을 묘사한 것이다.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식의 유기 화학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다섯 가지 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화성(火性)이 너무 많으면 성격이 고약하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러시다며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혼자 속으로나 생각하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목성(木性)이 너무 적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너무 귀를 잘 기울이고 자기 주장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수성(水性)이 너무 많으면 나처럼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 나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2년, 미술을 2년 공부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쪽도 학위를 얻지 못한 채 조그만 광고 회사의 비서로 취직했다가 지금은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다.

The elements were from my mother's own version of organic chemistry. Each person is made of five elements, she told me.
Too much fire and you had a bad temper. That was like my father, whom my mother always criticized for his cigarette habit and who always shouted back that she should keep her thoughts to herself.
Too much water and you flowed in too many directions, like myself, for having started half a degree in biology, then half a degree in art, and then finishing neither when I went off to work for a small ad agency as a secretary, later becoming a copywriter. (31)

징메이에게 쑤얀은 사람들의 성격을 5가지 자연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중국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오행에 관한 것이다. 사람의 성격이 급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에 비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휩쓸려 자기 주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려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나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비유된다. 수성이 많다는 뜻은 사람의 특성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이다. 징메이의 어머니는 딸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이것 저것 손대는 것을 수성으로 비유했다.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한 가지 일을 성실하고 꾸준히 견지하여 성취하는 것을 사회적인 성공으로 보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이 못마땅하였을 수도 있다. 징메이 역시 어머니의 비판에 빗대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물의 특성과 비슷하였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징메이는 곧 어머니의 비판을 고려할 가치가 없는 "중국 미신"이나 어떤 경우에는 "맞아떨어지기도 하는 신앙"이라고 묵살한다(31). 징메이 또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자라서 어머니의 중국식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와 함께 실려 온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생소한데다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표출된 어머니의 중국적인 생각은 징메이에게 더욱 이질적으로 다가왔고, 사람의 특성을 자연물의 특징과 연결시켜 설명한 어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무시해도 될 중국의 미신 혹은 민간신앙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의 기대와 중국식의 설명을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며 불편해 하는 징메이가 쑤얀의 진심을 알게 된 계기와 관련된 사건이 몇 가지 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쑤얀이 죽기 두 달 전 구정에 벌어진 일이다. 린도, 웨이벌리 가족과 함께 게를 먹던 날 징메이는 웨이벌리에게서 작업했던 광고가 세련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두 어머니들의 지나친 딸들에 대한 경쟁으로 웨이벌리에 대해 열등감을 가져왔던 징메이는 심한 수치심을 느낀다. 쑤얀이 또한 편들어주지 않아 배반당한 것이라고 느낀다. 혼자 부엌으로 가서 스스로를 바보스럽게 느끼고 있던 징메이에게 쑤얀은 금목걸이를 풀어 준다. 그리고 중국말로 징메이에게 말한다.

진작부터 네게 이 목걸이를 주고 싶었단다. 보렴, 내 살 위에 걸고 있지 않았었니.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걸 네 살 위에 걸고 있으면 내 뜻을 알게 될 거다. 이게 네 호신부야.

For a long time, I wanted to give you this necklace. See, I wore this on my skin, so when you put it on your skin, then you know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y meaning. This is your life's importance. (208)

쑤얀이 징메이에게 준 것은 옥으로 만든 호신부(護身符)였다. 쑤얀이 자신이 지니고 있었던 목걸이를 징메이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장신구를 물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옥으로 만든 호신부는 바로 어머니의 딸에 대한 사랑과 지지의 증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그것은 쑤얀이 그토록 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중국의 정신'이기도 하다. 쑤얀은 딸인 징메이가 언젠가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랐다. 쑤얀은 자신 안에 있는 중국적인 사고로 인해 징메이와 갈등을 겪었지만 어머니로서 징메이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 왔다. 언젠가 징메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자신을 여러 위기에서 구해줬다고 생각되는 목걸이를 이제 딸에게 물려주면서 그 커다란 행운과 상서로운 기운이 딸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쑤얀은 딸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중국적인 가치'도 함께 전해지기를 바란다.

징메이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옥이라는 보석이 가진 의미를 쑤얀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징메이의 내면에 자리한 오리엔탈리즘이 작용하여 중국사람들이 옥에 부여한 의미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미신으로 생각하고 받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다. 징메이는 어머니와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목걸이를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손에 쥐어주는 목걸이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머니 쑤얀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었지만 "내가 벌써 그걸 삼켜 버린 것처럼"(208)느껴진다고 하였다. 징메이는 어머니 쑤얀의 사랑과 중국적인 정체성을 거부하고 싶어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것을 삼켜버린 것과 같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쑤얀의 옥 목걸이는 어머니가 딸에게 바라는 염원이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쑤얀이 징메이에게 옥 목걸이를 전달하고 징메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쑤얀이 징메이에게 옥 목걸이를 준 시점이 징메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늘 비교된다고 느끼던 웨이벌리에게 모욕에 가까운 수모를 당한 뒤여서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쑤얀은 "쯔쯔! 왜 그애 말에 신경 쓰니? 뭐 때문에 그애 뒤를 쫓아다니고, 그애가 말하는 대로 하려들어? 그애는 이게와 같은 애야." "그앤 항상 비뚤비뚤 움직이며(moving crooked) 옆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만 가잖니. 넌, 네 다리로 다른 길을 가면 되는 거야"(208)라고 말한다. 쑤얀의 이 말뜻은 항상 원하는 대로 행동하여 남과 부딪힐 수도 있는 웨이벌리에 비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징메이의 사려깊은 마음 씀씀이를 격려하면서 징메이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중국식 표현인 자신의 길을 꿋꿋이 견지(堅持)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또한 웨이벌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매사에 모든 것을 남에게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라는 뜻이다.

그동안 징메이는 항상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는 좋게도 들리고 나쁘게도 들리는 말씀(290)"을 하셨다면서 어머니의 이중성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는 쑤얀이 종종 어머니의 말의 뜻을 잘 놓치는 징메이를 위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말하였다. 사실은 어머니의 이중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말투가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어머니 쑤얀의 이중성은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기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상황에 따라 이중적인 뜻으로 말하기는 듣는 사람을 긴장시키고 화자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말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을 갖게 하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쑤얀은 딸과의 화해를 위해 딸의 방식, 즉 직설적으로 말하는 미국적인 방식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쑤얀은 또 한편으로 중국 사람이 말하는 태도로 그 옥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쑤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문화적 환경에서 청년기까지의 정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쑤얀은 딸이 어머니 세대처럼 이미 형성된 정체성으로 정체된 삶을 살기보다는 옥의 색깔처럼 변화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건 다듬은 지 얼마 안 된 옥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색깔이 아주 연하지만 매일 걸고 있으면 녹색이 점점 더 진해질 거다"(209). 이것은 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옥처럼 계속해서 변화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어머니 쑤얀의 마음이었다.

어머니 쑤얀이 딸에게 전해주려던 중국적인 것도, 미국에서는 미국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징메이의 미국식 가치관도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비록 쑤얀의 중국에서의 삶의 경험이 이민의 땅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 쑤얀 또한 새로운 미국의 환경에서 미국적인 성격이 형성된 딸과의 상호관계속에서 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속 변화하고 있었다.

한편 쑤얀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주류 사회의 이민자 동화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짐으로써 생기를 잃어가던 참에, 교회에서 만난 다른 중국인 세 어머니들과 함께 중국에서 열었던 조이럭 클럽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이럭 클럽은 미국 내 소수인종들이 갖는 단순한 사교모임의 의미를 넘어서 "동화주의로 인한 완전한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보호"(박혜리 19)받고 동화주의를 강요하는 미국 내에서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징메이는 딸들 중에서 처음으로 조이럭 클럽의 구성원이 되었다. 징메이의 조이럭 클럽의 합류는 징메이의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징메이는 조이럭 클럽을 보통의 사교적인 모임이 아닌 이상한 종교집단과 동일시하였다. 다음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징메이가 은연중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문화권에 대해 미국이 취하는 태도를 내면화시켰던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부분이다.

그 시절, 그러니까 어머니가 구이린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 나는 조이럭 클럽이 KKK단의 비밀 회합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디언들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북을 둥둥 치면서 추는 춤처럼, 괴상한 중국 풍습이라고 생각했다.

In those days, before my mother told me her Kweilin story, I imagined Joy Luck was a shameful chinese custom, like the secret gathering of the Ku Klux Klan or the tom-tom dances of TV indians preparing for war. (28)

중국의 문화나 풍습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멀리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어렸을 적 중국 이야기를 듣거나 매체에 의해 간접경험만 있었던 징메이는 미국의 주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그대로 답습한다. 조이럭 파티에서 입는 화려한 어머니들의 옷을 보고 "부끄러운 중국의 풍습"으로 여겼고, 그것은 또 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의 전투전의 의식에 대한 비하와 이어져 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18)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자신들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는 이국적이고 신비롭다는 표현으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준과 범위에 벗어난다 하여 타국의 문화를 흥밋거리나 이국적인(exotic)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명백한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일 것이다.

그러나 징메이는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으로 외부에서 타 문화를 뒤틀린 시선으로 보던 입장에서 조이럭 클럽의 쑤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직접 중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마작모임의 구성원이 되어 조이럭 클럽에 합류한 징메이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구성원들을 바라보게 되고 모임의 바깥에서 포착되었던 “그런 신비로움은 전혀 볼 수가 없다”(28)라고 말한다.『조이럭 클럽』의 작가 텐은 징메이가 이제껏 자신이 조이럭 클럽에 대하여 “부끄러운 중국 풍습”이라고 느꼈던 것은 오리엔탈리즘이 내면화된 외부자로서 왜곡된 시선으로 타문화를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어머니의 부재로 조이럭 클럽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한 이후에는 조이럭 클럽이 이상할 것도 신비로울 것도 없는 미국의 다양한 문화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독자들에게 타문화에 대해 자칫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기회도 제공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오히려 오리엔탈리즘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내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이럭 클럽에 합류하여 내부자의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 징메이는 자신의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조이럭 클럽이 부여하는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 자신이 조이럭 클럽에서 대신하는 어머니의 자리는 중국인 어머니의 모든 것을 그 다음 세대인 딸들이 잇겠다는 상징임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의 자리를 자신이 계승함으로써 어머니들의 정체성을 딸들이 계승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장정훈의 언급대로 어머니를 대신한 징메이는 “나이와 문화적인 차이로 분리되어 있지만, 가족의 유대와 전통으로 묶여진 중국계 미국인들의 두 세대를 연결”(265)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쑤얀이 조이럭 클럽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징메이도 딸들 중 처음으로 조이럭 클럽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 2세대로서는 첫 번째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징메이가 1세대인 어머니들과의 연결고리에 안착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어머니의 중국적인 요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징메이가 옥목걸이 호신부와 조이럭 클럽의 회원이 됨으로써 미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영향으로 무의식중에 내재화시켰던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쑤얀이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계기는 중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다. “두 장의 비행기표”에서 조이럭 클럽의 구성원이 되어 징메이가 우선적으로 한 일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중국에 가서 쌍둥이 언니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징메이는 아버지와 탄 기차가 중국 선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신체적인 감각의 변화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중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267)고 한다. 이것은 징메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죽음이 모녀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오히려 징메이는 중국의 쌍둥이 언니들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어떤 부분이 중국인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신의 피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288)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껏 징메이가 배척해 온 어머니의 중국적인 유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김혜진의 연구에서는 징메이가 “중국에서 언니들을 만나는 순간” “중국에 뿌리를 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126)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링에 따르면 징메이가 중국으로 가는 것은 어머니로의 회귀가 되며 이민 2세대 딸의 문화적 뿌리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강영아 48 재인용). 이것은 자칫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방황하던 징메이가 중국문화로 회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징메이가 얻은 것은 단순히 중국적인 정체성이 아니다. 징메이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 것을 고집하며 어머니 쑤얀과 갈등을 빚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중국의 쌍둥이 언니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의 정체성과 완전히 일치한다거나 어머니의 중국유산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징메이가 중국에서 자신이 진짜 중국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외양 묘사를 한 부분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화장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진짜 중국 사람으로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내 키는 165 센티미터나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로 머리가 솟아 있고, 다른 관광객들의 머리는 내 눈 있는 데까지만 온다. 어머니는 언젠가 내가 외할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다며, 외할아버지께서는 북쪽 분이어서 어쩌면 몽고인의 피가 섞였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Even without makeup, I could never pass for true Chinese. I stand five-foot-six, and my head pokes above the crowd so that I am eye level only with other tourists. My mother once told me my height came from my grandfather, who was a northerner, and may have even had some Mongol blood. (272)

징메이 자신도 자신이 진짜 중국 사람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몽고인의 피가 섞였을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것은 정확히 중국적이거나 미국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자신의 모습, 혹은 중국과 미국의 것을 더하여 새롭게 변형된 경계인의 정체성일 것이다.

징메이의 새로운 정체성의 확인은 중국의 언니들을 만난 순간에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징메이는 35년이라는 시간동안 미국의 환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겉으로는 중국적인 가치관에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점차적으로 어머니의 염원이 징메이의 마음에 들어왔고 그 결과 징메이는 어머니의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징메이는 그동안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중국적인 것을 열등하게 치부하였다. 또한 징메이는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중국적인 정체성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쌍둥이 언니들을 찾아 가는 여정을 통하여 자신이 어머니 쑤얀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쑤얀의 염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중국적인 것을 포용하면서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어머니의 희망을 담은 깃털의 역동성과 옥의 변화무쌍한 성질이 혼재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남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린도 종과 웨이벌리 종: 이중성의 의미

『조이럭 클럽』의 네 어머니 중 린도는 어렸을 때 집안들끼리의 결혼 약속으로 인해 12살 때 가족들과 헤어져 시집살이를 하던 중 꾀를 내어 탈출하여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미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틴 종(Tin Jong)과 결혼하여 윈스턴 종(Winston Jong)과 빈센트 종((Vincent Jong), 그리고 웨이벌리 종을 낳았다. 어렸을 때 중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미국으로 오게 된 린도의 염원은 아이들이 미국 환경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며 성장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어머니 린도가 혼잣말로 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 하는 장면이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더 좋게 해주고 싶었다. 제일 좋은 환경을 갖게 해주고 싶었고, 제일 좋은 성격을 갖게 하고 싶었어. 네가 조금도 후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I wanted everything for you to be better. I wanted you to have the best circumstances, the best character. I didn't want you to regret anything. (265)

어머니 세대인 린도가 말하는 "제일 좋은 환경"이란 중국에서처럼 자신의 출신이나 계급, 성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운명에 처해지는 결정론적인 환경이 아니라 집안형편이 어렵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혹은 사회제도의 지원으로 자신의 가난을 극복하고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누군가를 고소할 수 있는 자유와 집주인에게 집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미국적인 환경을 의미한다(254). 또한 "제일 좋은 성격"이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의 박약으로는 어머니가 바라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또는 자신 내부의 강한 힘과 의지로 억압받는 환경을 탈출하여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자신의 적극적인 성격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린도는 자신의 적극적인 성격이 자신의 출신지와 가문의 힘이라고 믿어왔다. 『조이럭 클럽』의 네 어머니 중에서 린도는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자부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여성이다. 예를 들어 웨이벌리가 어머니의 출신지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서운해 하였다. 린도는 타이완이 아닌 타이위안(太原) 출신인데 웨이벌리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타이완 사람으로 착각하자 "난 중국 타이위안에서 태어났어. 타이완은 중국이 아냐"(183)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웨이벌리는 자신이 고의로 그렇게 발음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어머니가 화를 내자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다.

웨이벌리는 어려서 어머니가 체스 챔피언인 자신을 이용하여 으스대고 잘난 척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반항하였다. 린도가 웨이벌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더 나아가 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이웃에게 자랑하는 행동은 심리학자 아들러의 이론에 비추어 보자면 "과제의 분리"가 되지 않은 부모의 행동으로 보인다(기시미 159). 딸에 대한 심한 애착으로 딸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웨이벌리의 심한 반발로 린도의 관심이 사라지자 신기하게도 웨이벌리는 자신감을 잃고 체스 대회에서 다시는 우승하지 못한다. 성장한 웨이벌리는 자신의 첫 사랑과의 결혼생활이 어머니의 방해로 인하여 깨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내부에 어머니에 대해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쌓아가고 있었다. 웨이벌리는 중국계 미국인 1세대의 딸로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신체적 특징으로 유럽계 미국인과 구별되었다. 그러므로 웨이벌리의 사춘기는 극도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을 시기였다. 또한 웨이벌리는 자신이 내딛고 서 있는 미국이란 곳에서의 생활과 문화, 관습 등이 중국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의 그것과는 다름을 인지해야 하고 미국에서의 생활도 잘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었다. 김혜진은 딸들의 이러한 상황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중국과 미국의 문화 사이에서 투쟁을 하거나 협상을 해야만 하는"(95) 상황에 처해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딸들은 현재 미국 문화권에서 살면서 중국의 문화를 대변하는 어머니들과의 "투쟁"과 "협상" 속에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찾아 나간다는 뜻이다. 또한 웨이벌리는 어머니에 대한 무관심으로 어머니가 미국에서 건너오셔서 아버지와 만나게 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웨이벌리가 어머니가 미국에 올 때 비행기가 아닌 느린 배를 타고 왔다고 말하거나 아버지가 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말들을 친구들에게 전하자 린도는 딸의 진실하지 못함을 탓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 너는 중국 사람들에 관한 허튼소리에만 정신이 팔려 있니? 너는 나의 진짜 사정을 알아야만 한다. 내가 어떻게 도착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중국인 얼굴을 잃었는지, 왜 네가 지금과 같이 돼버렸는지를 말야.

Why are you attracted only to Chinese nonsense? You must understand my real circumstances, how I arrived, how I married, how I lost my Chinese face, why you are the way you are. (259)

린도가 말하는 "중국 사람들에 관한 허튼 소리"란 지금 현재까지도 엄연히 존재하는 미국인들의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의미한다. 일레인 킴(Elaine H. Kim)은 실제로 미국 주류 사회가 중국인들을 "bad"와 "good"으로 나누고 사악함의 화신에는 푸 만추(Dr. Fu Manchu)를 미국 사회로의 동화에 성공한 탐정 찰리 챈(Charlie Chan)에 대해서는 정반대에 위치시키면서 아시아인의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5-21). 『조이럭 클럽』이 쓰이기 전부터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재생산 되는 중국계 미국인의 전형에 분노하는 1세대 이민자인 린도는 웨이벌리가 자신과 남편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대충 말하는 것은 주류사회에 존재하는 중국인의 이미지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웨이벌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인은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로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어머니도 배를 타고 왔을 것이고 남성 또한 그 당시 중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가졌던 직업군들인 웨이터나 벨보이, 혹은 조수 중에 한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아버지도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중국 여성 이민자인 어머니를 만났을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이러한 웨이벌리의 부모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린도는 미국에 살면서도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졌고 자신이 태어난 타이위안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다. 또한 "우리 친정 집안사람들은 머리가 좋단다. 의지가 아주 강하고 권모술수도 부릴 줄 알고[영리하면서 교묘하고(tricky)],[2]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기로 유명하지"(182)라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딸에게 피력했다. 린도가 “타이위안 사람들은 중국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중국을 내몰아 버릴 수가 없”(183)다고 강조하는 표현은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온 현재에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민족적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린도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은 어렸을 적 강제결혼에 대한 절망을 극복해 낸 뒤 생긴 결과물로 보인다. 린도는 결혼하기 전 자신의 운명이 두 살 때부터 결정되었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었다. 그러나 이내 바깥에서 부는 바람의 힘을 느끼며 자신의 운명이 평생 동안 고착화 되지 않고 바람처럼 변화할 수 있음을 감지한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바람의 힘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바람 그 자체는 볼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이 물을 날라 강을 채우고, 땅 모양도 바꾼다는 사실을 안 거야. 사내들을 아우성치게 만들고 껑충거리게 만든다는 것도 말야.
나는 눈물을 닦고 거울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거기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 나는 아름다운 붉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본 것은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었어. 내가 강하다는 것. 내가 순수하다는 것.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생각을 내 속에 품고 있다는 것. 나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었어.

And then I realized it was first time I could see the power of the wind. I couldn't see the wind itself, but I could see it carried the water that filled the rivers and shaped the countryside. It caused men to yelp and dance.
I wiped my eyes and looked in the mirror. I was surprised at what I saw. I had on a beautiful red dress, but what I saw was even more valuable. I was strong. I was pure. I had genuine thoughts

2) 이 소설을 번역한 박봉희는 tricky를 “권모술수도 부릴 줄 알고”로 옮기고 있으나, 린도가 친정 집안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해 “영리하면서 교묘하고”의 의미를 덧붙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inside that no one could see, that no one could ever take away from me. I was like the wind. (58)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변 사물들의 움직임으로 그것의 존재와 힘을 느낄 수 있다. 또 바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물론 형체나 크기가 없을뿐더러 기압의 차이, 육지와 바다 어느 쪽에서 부는가에 따라 부는 방향과 힘의 세기가 달라진다. 그렇지만 바람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의 힘을 느끼고 볼 수 있다. 린도 종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부모형제와 헤어져 잘 알지 못하는 남의 집으로 시집을 가야하는 절망의 때에 바람의 힘을 통찰하고 자신도 그 바람처럼 지금껏 살던 집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운명의 장소로 떠밀려 가지만 또한 "아무도 들여다 볼 수 없"는 바람의 내부처럼 자신 또한 강하고 순수하고 "참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바람처럼 어디론가 옮겨가지만, 그 곳에서도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 즉 자신의 의지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더한 의지로 마침내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환경으로부터의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린도는 자신이 중국에서 느꼈던 "바람의 힘"을 딸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다. 이 "바람의 힘"은 어느 곳에 멈춰있지 않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이럭 클럽』 1장의 백조의 우화에 등장하는 마지막 남은 깃털과도 유사성이 있다. 또한 이것들은 1세대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바라는 가장 좋은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그들은 딸들이 깃털과 바람처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정체성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김진경은 어머니들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와 통찰력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미국 사회를 사는 딸들의 상황에도 유효성을 가지게 된다"(35)고 하였다. 린도의 경우에도 자신이 경험한 바대로 웨이벌리에게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더 강한 바람을 타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 결과 웨이벌리는 아홉 살에 미국에서 체스 챔피언이 되었다. 그러나 린도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에게 웨이벌리가 체스를 잘 하는 것이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닌 전략이란 점을 강조하며 "체스를 이기는 데 그렇게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저 술수라구요. 동, 서, 남, 북, 사방에서 불어 보세요. 그럼 상대방은 혼비백산해서 어디로 도망칠지 갈피를 못 잡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는 거지요, 뭐”(170)라고 말한다. 린도는 손씨 가문의 사람이라면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서(tricky) 당연히 전쟁도 체스도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또한 손씨 가문의 자손인 웨이벌리가 체스를 통해 미국 사람들을 이겨서 중국인의 자부심을 세워주는 것이 못내 기뻤지만 그 기쁨을 숨기며 겸손을 떨었다. 그러나 웨이벌리는 어머니가 중국인, 타이위안인, 손씨 가문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넘쳐 자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체스를 며칠간만 그만 두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머니에게 저항한다. 그렇지만 린도는 딸의 저항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결과 웨이벌리가 체스를 다시 시작하지만 시합에서 다시 이기지 못한다. 이로 인해 웨이벌리가 가장 좌절한 것은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웨이벌리는 자신을 간섭하고 통제하려던 어머니에게 저항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인정을 바라는 이중적인 감정을 가졌던 것이다.

중국과 자신이 태어난 지방 그리고 가문에 자부심이 대단했던 린도는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틴 종과 결혼한다. “당연하지, 광둥의 종씨 가문 아니냐. 가끔 성질이 나쁘고 인색하지만서도 말이다, 그 가문 사람들은 착하고 정직하단다. 넌, 네 아버지를 보면 그걸 알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그 양반이 어떠실지 말야”(182). 린도는 남편 틴 종에 대해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린도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막내인 딸의 이름은 그녀가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길 이름을 따서 웨이벌리라고 짓는다(265). 린도는 딸이 자신의 좋은 점과 자부심, 정체성 등을 이어받고 미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린도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로 저항하는 웨이벌리와 갈등하게 된다. 이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미용실의 거울을 통해서 똑같이 생긴 딸을 보고 자신이 어린 시절에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딸의 행동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린도는 어렸을 적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경대 앞에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경험이 있다. 귀와 콧구멍과 턱과 이마, 눈에 대해 린도의 어머니가 소상히, 또한 린도가 자신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외모에 대해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다. 그래서 린도는 자신에게 자상하며 자신을 사랑하신 어머니를 너무나 닮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으로 와서 자신이 중국인의 얼굴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린도는 무엇 때문에 자신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딸은 자신의 일부분을 갖기를 원하며 웨이벌리를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 그런 과정에서 린도는 자신의 의도가 지나쳐서 딸과 종종 갈등을 빚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웨이벌리는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인 리치(Rich)를 어머니에게 소개하는데 중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리치는 어머니의 맘에 들지 못한다. 예전의 결혼생활처럼 앞으로의 재혼도 어머니에 의해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에 괴로워하던 웨이벌리는 어머니를 찾아간다. 그러나 소파에 무방비 상태로 누운 어머니를 보고 이제껏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웨이벌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항상 자신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가장 약한 점을 들춰내며 곤경에 빠뜨렸다고 여겼으나 그녀가 간과한 진실은 린도가 딸의 이해와 소통을 바라는 늙으신 보통의 어머니라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바람을 알아차리고 나서 웨이벌리는 어머니와 함께 자신이 다니는 유명한 미장원에 간다. 그 곳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아 거울을 쳐다보는데 웨이벌리는 자신의 눈이 아닌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의 볼이 똑같음을 발견한다. 어머니에 대해 그동안 거부 반응을 나타내던 딸이 무심결에 거울을 통해서 어머니와 닮은 곳을 찾고 있다. 이것은 은연중에 어머니와 자신의 닮은 점을 찾아서 린도에게서 자신에게 이어지는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에서 자란 어머니들과는 달리 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문화의 토대에서 자라났다. 집에서는 중국문화가 몸에 스며있고 딸들이 중국의 정신을 갖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에게서 양육된다. 그러나 집 문을 나서면 다른 여러 문화와 생활양식을 접하게 된다. 딸들은 영어로 말하고 미국문화에 동화되어 진짜 미국인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양쪽의 문화로 인하여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미용실의 거울을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어머니와 너무도 닮은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됨으로써 은연중에 어머니의 인정을 원하는 웨이벌리의 감정이 드러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그 애는 얼굴을 찡그리고서 거울을 통해 자기를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
“볼이 똑같아요.”
그애는 말한다. 내 볼을 가리키더니, 자기 볼을 쿡 찌른다. 굶주린 사람 얼굴처럼 볼을 안으로 빨아들인다. 그애는 자기 얼굴을 내얼굴 옆에 나란히 갖다 댄다. 우리는 서로를 거울 속에서 본다.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는 거야. 나는 네 장래를 볼 수 있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한다. 지금 거울 속에 보이는 두 얼굴은 너무도 똑같다! 똑같은 행복과 똑같은 슬픔, 똑같은 운세, 똑같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옛날 중국에서의 어렸을 적 내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She is frowning at herself in the mirror. She sees me looking at her.
“The same cheeks,” she says. She points to mine and then pokes her cheeks. She sucks them outside in to look like a starved person. She puts her face next to mine, side by side, and we look at each other in the mirror.
“You can see your character in your face,” I say to my daughter without thinking. “You can see your future.”
“What do you mean?” she says.
And now I have to fight back my feeling. These two faces, I think, so much the same! The same happiness, the same sadness, the same good fortune, the same faults.
I am seeing myself and my mother, back in China, when I was a young girl. (25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거울은 사람의 겉모습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을 관찰 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린도와 웨이벌리 모녀는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 보았다. 딸들의 거울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즉, 딸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어머니에게서 찾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나 의미를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 딸들은 어머니와 갈등하게 된다. 어머니들 또한 다음 세대인 딸들이 자신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바람을 반영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거울의 특성상, 깨끗이 닦고 관리하지 않으면, 비춰지는 모습이 흐릿하고 탁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또한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은 거울 입장에서 보자면 반대편이다. 나는 오른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거울은 왼손을 든다. 그러므로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은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의 반대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웨이벌리는 어머니 린도가 여태까지 자신을 간섭하고 속상하게 하려는 의도로 자신에게 강한 모습으로 대해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실 어머니는 딸의 그러한 생각에 상처받고 눈물짓는 약한 모습도 지닌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웨이벌리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코가 어머니 린도를 닮아서 비뚤어졌다(crooked)고 생각한다. 린도의 코는 태어날 때부터 비뚤었던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가다가 코를 찧는 바람에 비뚤어진 것이다. 린도는 미용실에서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자신의 약점이 딸에게도 전해진 것을 알아차린다. 린도는 딸의 코마저 비뚤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웨이벌리에게 성형수술을 권한다. 그러나 린도의 생각과 달리 웨이벌리는 자신의 비뚤어진 코를 싫어하지 않았고 성형수술을 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자신의 코는 흉한 게 아니라 서로 반대편에서 봤을 때 이중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웨이벌리와 린도의 대화는 『조이럭 클럽』에 등장하는 네 쌍의 중국계 미국인 모녀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엄마는 참, 우리 코가 그렇게 보기 흉하게 생긴 건 아니라고요. 우리를 이중적으로 보이게 하거든요.”
딸은 즐거운 표정이다.
“‘이중적’? 그게 무슨 말이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나는 묻는다.
“그건 하나의 길을 가면서 다른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의도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니?”
딸은 웃는다.
“설마, 머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려구요.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거예요.”
“그게 좋은 거니?”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Dont be silly. Our nose isn’t so bad,” she says. “It makes us look devious.” She looks pleased.
“What is this word, ‘devious,’” I ask.
“It means we’re looking one way, while following another.
We’re for one side and also the other. We mean what we say, but our intentions are different.”
“People can see this in our face?”
My daughter laughs. “Well, not everything that we’re thinking. They just know we’re two-faced.”
“This is good?”
“This is good if you get what you want.” (266)

웨이벌리가 거울을 보며 엄마와 코가 닮았다고 말하자 린도는 예전에 코를 찧는 바람에 코가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 말을 싫어하였다. 하지만 웨이벌리는 의외의 해석을 내놓는데 비뚤어진 코가 자신들을 “이중적”(devious)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웨이벌리는 이중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의 길을 가면서 다른 길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말이라고 하였다. “we’re looking one way, while following another”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방식과 실제로 따르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린도는 딸이 말한 “two-faced”가 긍정적인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이유는 린도가 1세대 이민자로서 미국 백인들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 갖는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린도가 생각하기에 “two-faced”나 “devious”는 자칫 백인들이 중국인들에게 갖는 스테레오타입, 즉 속을 감추고 알 수 없는 중국인이라든가 백인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중국인이라는 편견어린 이미지와 연결된다. 이런 이유로, 강영아는 “중국인의 이중성은 아시아 여성의 수동성만큼이나 널리 알려진 것으로 동양인의 본질과 무관하게 서구 식민주의가 동양인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적 이미지”(21)라고 언급하였다.

서구가 동양인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중국인의 이중성은 듀 보이스(William Edward Burgkardt Du Bois)가 언급한 아프리카 미국인의 이중적 정체성의 문제와 유사해 보인다. 듀 보이스는 『흑인의 영혼』(*The souls of black folks,* 1903)에서 “흑인은 베일을 지닌 채 태어났고, [. . .] 예지능력(second sight)을 부여받았다. [...] 이 ‘이중 자의식(double-consciousness)’이라는 것은 특이한 감각으로 언제나 타인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며, 언제나 비웃음과 동정심을 가지고 자신을 관찰하는 세상의 잣대로 자신의 영혼을 측정하는 것이다.”(5)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흑인은 ‘이중 자의식’의 혼란스러운 자기 괴리감을 넘어설 수 있는 “second sight”라는 전략을 갖게 된다. 베일은 흑인의 시각을 가리기도 하지만, 지배자에게 흑인이 절반만 보이게도 한다. 흑인은 베일안에서 “제 2의 시각”(윤성호, 33)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devious”는 린도가 자신의 가문에 대하여 자랑할 때 사용한 “tricky”와 연결되는 의미를 갖는다. 두 단어 모두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것으로 역전시키는 전략적 이중성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전략은 중국계 미국인의 양가성(ambivalence)의 전략으로 확장 될 수 있다.

호미 바바(Homi Bhabha)는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에서 어떻게 피식민지인이 백인 지배자에게 한편으로는 지배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양가적인 존재인지 설명한다. 바바는 파농(F. Fanon)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Black Skin, White Masks*)을 인용하면서, 추워서 덜덜 떠는 흑인의 몸짓은 백인들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한 분노로 치를 떠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배자에게 위협적인 의미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바바 191). 식민지배자에게 피식민지인은 "이접성(disjunction)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이전'과 '이후'사이의 분열"(192)의 대상으로 보인다.

"이접성"은 논리학의 용어로 A하면서도 B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 백인들이 아시아인에 대해서 시대별로 사악한 악마의 이미지를 구축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모범적 소수인종의 전형을 제시했던 것이 그 예일 것이다. 그러나 "흑인은 방탕하며 아시아인은 표리부동하다는"(179) 정형화의 잣대는 그 자체로 모순적이기 때문에 "혼합적이고 분열적이며, 다형태적으로 비꼬인 다중적 신념의 접합"(192)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배인(권력자)이 피식민지인(소외되고 구별되는 소수자)를 욕망하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양가성이 식민지배인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 사는 중국계 미국인 모녀가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자신들의 자리를 유리한 곳에 위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웨이벌리가 말한 대로 이중적으로 보이는 코가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교란하고 자신을 차별하는 지배문화를 위협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린도는 어느 것이 미국인의 것이고 중국인의 얼굴인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혼돈스러워했고, 한쪽의 카드를 내보인다면 다른 하나는 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였다(266). 이것은 이민 1세대 어머니는 자신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동시에 드러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린도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신이 40년 만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인들이 외국인을 대하듯 자신에게 비싼 요금을 물렸기 때문이다(266). 린도는 미국 백인들은 자신을 중국인처럼 대하고, 중국인들은 자신을 외국인처럼 대한다고 느껴왔다. 그래서 린도는 "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봐야겠다고"(266)하며 이중성에 대한 과제를 딸 세대에게 넘겨주었다.

중국에서 자라서 미국으로 건너와 살고 있는 어머니들과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부모로부터 중국적인 배경을 물려받은 딸들의 상황은 모두 "이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린도가 웨이벌리의 비뚤어진 코를 성형수술 해야겠다고 생각하듯 어머니들은 딸들이 내부에는 중국적인 성질을 갖고 겉으로는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랐다. 반면 웨이벌리는 자신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국 사회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자각하고 있었다. 웨이벌리는 오히려 자신이 그 이중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티나 수영(Tina-Suyong)이 말한 “이민 2세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이중적 문화에 대한 비평적 이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험”(황정희 15 재인용)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웨이벌리의 대답은 또 한편으로 중국 이민자 사회가 가지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다름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미국 사회에 대해 웨이벌리와 같은 중국인 이민 2세들은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좋은 것이냐’는 린도의 질문에 웨이벌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고 답한다. 웨이벌리는 중국인 2세로서 그녀가 가진 이중성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며, 중국 문화의 배경을 가진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감추려하지 않는다. 웨이벌리는 이중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중성에서 벗어나거나 이중성을 없애려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서 그 배경이 자신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다. 웨이벌리는 미국의 백인중심 문화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미국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해가는 정체성 모색을 시도한다.

웨이벌리는 어머니와의 화해 이후로 리치와 가는 신혼여행에 어머니와 함께 갈 것을 상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주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차이점을 뒤로 하고 비행기에 같이 올라 나란히 앉아서, 서방을 떠나 동방으로 날아간다는 건 얼마나 근사하겠는가.

Yet part of me also thinks the whole idea makes perfect sense. The three of us, leaving our differences behind, stepping on the plane together, sitting side by side, lifting off, moving west to reach the East. (18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웨이벌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어머니와 자신의 차이를 보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 혹은 둘에게 더 나은 방향 즉, "서로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들의 융해, 혼합, 재구성이 이루어지는"(이소희 「호미」 103) 제3의 영역으로 나아 갈 수 있음을 암시한다.

3. 안메이 슈와 로즈 슈 조던: 자신의 목소리 되찾기

이민 1세대 어머니인 안메이 슈는 딸의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곤경에 처한 자신의 딸 로즈에게 전하고 싶어한다. 그 가르침은 여성이 자신의 처지를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눈물만 삼키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희생은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안메이의 어머니는 과부였으나 우징(Wu Tsing)이라는 부호의 꾐에 빠져 그의 첩이 되고 만다. 그 당시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있는 중국에서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안메이 슈는 네 살 때 잊지 못할 상처를 경험한다.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내침을 당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안메이를 찾아오면서 갑자기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어머니에게 가고 싶었던 안메이의 목에 뜨거운 스프가 쏟아졌다. 상처가 아물자 어린 안메이는 매끈해진 살갗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와 어머니를 기억할 수 없었다(66).

그러나 안메이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서 자신의 살점을 약탕기에 넣어 그 물을 외할머니께 드렸던 것을 기억하며 딸 로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딸은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는 거야. 그 존경심은 너무도 깊숙이 박혀 네 뼈속에 있어. 살점의 고통을 잊는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너는 네 피부를 벗겨야 하고, 또 어머니의 피부와 외할머니의 피부도 벗겨야만 해.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상처도 없고, 피부도 없고, 살도 없어질 때까지.

This is how a daughter honors her mother. It is *shou* so deep it is in your bones. The pain of the nothing. The pain you must forge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ecause sometimes that is the only way to remember what is in your bones. You must peel off your skin, and that of your mother, and her mother before her. Until there is nothing. No scar, no skin, no flesh. (48)

안메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살려내기 위하여 살점을 도려내는 행위를 본 후에 어머니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된다. 그 존경심은 '효'라고 불리는 것이고 세대로 전해져 로즈의 뼈 속에까지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안메이가 이것을 딸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성인 딸들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다. 권혁경과 임진희가 설명하듯이, 이와 같은 "안메이의 말은 모녀관계의 긴밀성"(264)을 잘 보여준다. 텐은 안메이의 이야기를 통해 살점으로 긴밀히 연결된 모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징메이가 중국에 있는 언니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 안메이가 "네 어머니는 네 뼈 속에 있는데!"(40)라고 언급한 부분과도 연결된다.

안메이는 어머니가 닝보에 오셨을 때 어머니의 꿈에 나타났던 거북이 이야기를 듣는다. 거북이는 여자가 울더라도 그 눈물은 슬픔을 씻어가지 않고 여자의 머리 위에서 비웃는 까치처럼 남의 행운만 먹여 살린다고 말하였다. 안메이는 그 뒤부터 눈물을 삼키는 법을 배웠으나 자신의 어머니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음력 설 이틀 전에 죽음을 선택한 뒤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안메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각자의 삶에 대한 책임이며 운명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성장 과정을 통해 경험하여 깨달은 바를 다음 세대인 로즈에게도 전해 주고 싶었다.

그러나 안메이는 자신이 딸에게 가르쳤던 것이 반대의 결과를 향해 치닫게 되자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 그리고 그녀의 딸이 남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기득권의 세상에서 항상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계단위의 여성들임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겐 그와 반대로 가르쳤지만, 결국 그 애는 나와 똑같이 되어 버렸으니 어쩌겠나? 내가 낳은 딸이고 천생 여자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나도 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천생 여자였다. 우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두 계단 같은 존재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지만, 우린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And even though I taught my daughter the opposite, still she came out the same way! Maybe it is because she was born to me and she was born a girl. And I was born to my mother and I was born a girl. All of us are like stairs, one step after another, going up and down, but all going the same way. (215)

그러나 안메이가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이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새로운 희망은 싹 틀 수 있다. 안메이는 어머니가 억압적이고 여성 차별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겪었던 고통을 같은 여성으로서 이해하였다. 딸인 로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로즈의 남편인 테드 조던(Ted Jordan)이 남성적인 권위로 자신의 외도를 감추고 로즈에게 일방적인 이혼 통보와 함께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요구했을 때 안메이는 여성으로서의 연대 의식을 갖고 로즈에게 주체적이고 당당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안메이의 딸 로즈는 버클리 대학에서 사귄 미국인 테드와 결혼한다. 결혼하기 전에 테드의 어머니는 로즈의 인종을 문제 삼았다. 또한 로즈를 베트남인으로 오인한다. 이것은 백인들이 국가와 인종, 민족간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시아인을 특징 없는 얼굴로 범주화시킨 일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권혁경이 언급한 것처럼 테드의 어머니가 “백인들이 자신과 타자를 구별하는 의식적 경계선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서구의 경계를 벗어난 자들을 총칭”(251)하는 동양적 타자로 로즈를 인식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테드의 어머니는 백인이 갖는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즈와 테드는 양쪽 어머니의 반대가 있자 사귄지 1년이 안되어 같이 살게 되었고 곧 결혼하였다. 로즈가 테드의 어머니가 한 말을 전하자, 테드는 “그래서 넌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 작정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결정하시게 놔두고 말이지?”(159)라고 말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로즈에게 매달렸다. 로즈는 테드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라기보다는 테드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에 감동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결혼했다고 할 수 있다. 로즈는 테드와의 연애생활부터 현재의 결혼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을 테드에게 미뤄왔었다. 그러나 테드의 의료사고 패소 이후, 테드가 로즈에게 결정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로즈와 테드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로즈가 의사결정을 남편에게 미룬 이유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일 뿐이고 자신이 기껏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은 희망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의 선택권은 하느님이나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믿었다. 강영아가 지적하듯이, 로즈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살아오게 된 데에는 과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막내 동생을 잃은 사건이 중용한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23). 그녀가 열 네 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자신에게 돌봐주라고 맡긴 남동생 빙을 '괜찮겠지'라는 한순간의 안일한 생각으로 죽게 만든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안메이는『스물여섯 개의 불길한 문』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어린애들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주의하면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로즈는 어머니의 믿음을 미신으로 치부하였다. 온 가족이 바닷가로 놀러가던 날 로즈는 자신에게 맡겨진 막내 동생 빙이 위험한 암초에 서 있는 것을 말리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남동생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가족 모두에게 있다. 낚시에만 열중하느라 자신에게 위험스럽게 다가오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 둔 아버지, 여러 남동생들을 한꺼번에 로즈에게 맡긴 어머니와 언니들이 그렇다. 로즈에게도 빙이 애초에 위험한 방파제를 걷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빙의 죽음은 가족 모두의 부주의로 인한 불행한 사고였던 것이다.

빙의 죽음으로 안메이도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넹칸(nengkan), 즉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121)다는 믿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로즈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자, 안메이는 모든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충고한다. 안메이가 딸의 불행 앞에서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은 운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운명이란 것은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십사 하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運命)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역동적인 운동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다. 즉, 운명이란 어떤 일이 결정되기 전에 그 일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사건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미래를 조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의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불행한 사태가 예견될 수 있는 또 다른 얼굴의 운명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어머니가 딸에게 갖는 넹칸일 수도 있다. 또한 이로써 안메이도 딸의 촉진자로서의 어머니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로즈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자신이 징조를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겼던 것도 사실은 "반은 기대에 의해서, 반은 부주의에 의해서 형성된다"(130-31)는 것을 깨달았다.

로즈는 어머니의 권유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hulihudu*"(糊里糊涂) 하고 "*heimongmong*"(黑蒙蒙)(188)하다고 느낀다. 로즈는 적어도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은 직시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로즈가 꿈속에서 쵸우 할아버지(Old Mr. Chou)의 문에서 떨어진 후에 무서워서 눈도 뜨지 못하고, 장님처럼 손과 무릎으로 어둠 속을 가르며 길을 알려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confused"하고 "dark fog"와 같은 상황을 "훌리후두"하고 "헤이몽몽"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188). 이렇게 로즈가 어리둥절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녀의 어머니는 로즈에게 목성(木性)이 없어서 그렇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자 애는 어린 나무와 같단다. 넌 똑바로 서서 네 옆에 서 있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만 해. 그것만이 강하고 곧게 자라는 길이야. 그러나 네가 다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너는 약하고 휘어지며 자랄 거야. 강풍이 불면 대번에 쓰러지겠지. 그러면 넌 잡초처럼 돼버려 사방으로 땅바닥을 타고 마구 뻗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마침내는 누군가가 너를 잡아 뽑아 던져 버릴 거야."

"A girl is like a young tree," she said. "You must stand tall and listen to your mother standing next to you. That is the only way to grow strong and straight. But if you bend to listen to othe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eople, you will grow crooked and weak. You will fall to the ground with the first strong wind. And then you will be like a weed, growing wild in any direction, running along the ground until someone pulls you out and throws you away." (191)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땅속에 그 뿌리를 내리면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게 목성이 없다면 강풍에 쓰러질 것이다. 안메이는 로즈가 어머니의 말보다도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자칫 딸을 과잉보호 하는 어머니의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말에 잘 휩쓸리는 로즈의 우유부단한 성격에 대한 어머니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안메이는 강풍에 쓰러진 나무는 잡초처럼 사방으로 마구 뻗어 나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뽑힐 것이라고 로즈에게 경고했다. 안메이는 로즈에게 중대한 일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로즈의 성격을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고 얕은 뿌리로 사방에 퍼지는 잡초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고집이 세지 않고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있고 다양한 의견을 잘 수용한다는 뜻이다. 린도와 웨이벌리 모녀의 코가 "crooked"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나무가 바람에 "휘어진다"(crooked)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다른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메이가 딸에게 바라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 테드는 로즈를 결혼생활동안 남편에게 모든 결정권을 미루고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여자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테드는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로즈가 순순히 자신의 의사를 따를 것으로 오인했다가 로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로즈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어머니의 충고를 수용하고 행동으로 옮겨 성공적인 경험을 수행하였다. 결국, 평상시 겉으로 보이는 로즈와 중요한 순간에 행동하는 로즈는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여태까지 로즈는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의견 중에 미국인의 의견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낫다고 생각하고 미국인의 의견을 쫓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선택의 여지가 많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른 선택을 하기가 십상”이어서 “미국인의 의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91). 로즈는 어머니로부터 너의 목소리를 내라는 전화를 받고 남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인다. 로즈가 정신을 차리고 테드와 전화통화를 해보니 생각보다 남편이 비열한 사람임을 알아차린다. 현실을 직시하고 보니 모든 의문점들이 사라졌고 로즈는 테드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과 자신에게 남편이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남편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한 날 밤 로즈는 어머니와 쵸우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을 꾼다.

그날 밤 나는 정원을 헤매는 꿈을 꾸었다. 나무들과 관목들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그때 나는 저 멀리에서 쵸우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급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안개가 두 분 주위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았다. 두 분은 어떤 화분 상자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저기 있군요!”라고 어머니가 외치셨다. 쵸우 할아버지는 내게 웃어 보이며 손을 흔드셨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걸어가, 어머니가 마치 아기를 보살피듯 뭔가의 위에서 서성거리시는 걸 보았다.
“보렴. 오늘 아침에 막 심었다. 조금은 네 거고, 조금은 내 거야.”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헤이몽몽’ 속에서 상자 속의 잡초가 상자 밖으로 잔뜩 쏟아져 나와 바닥을 타고 거칠게 퍼져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That night I dreamt I was wandering through the garden. The trees and bushes were covered with mist. And then I spotted Old Mr. Chou and my mother off in the distance, their busy movements swirling the fog around them. They were bending over one of the planter boxes.
“There she is!” cried my mother. Old Mr. Chou smiled at me and waved. I walked up to my mother and saw that she was hovering over something, as if she were tending a baby.
“See,” she said, beaming. “I have just planted them this morning,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ome for you, some for me."
And below the *heimongmong*, all along the ground, were weeds already spilling out over the edges, running wild in every direction. (196)

로즈가 꿈속에서 정원을 헤매고 정원이 안개로 덮여 있다는 것은 로즈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쵸우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은 로즈가 자신의 목소리를 남편에게 내었으므로 앞으로의 전망이 희망적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안메이와 로즈 두 모녀 또한 어머니가 딸에게 전달하는 것과 딸이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생긴 틈새의 오해가 해결될 기미를 보인다.

장정훈에 따르면, 개인의 정체성은 "한 개인이 체험할 수 있는 무한한 경험적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268)이라고 한다. 로즈 또한 어렸을 때 동생을 잃어버렸던 경험이후의 생각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로즈는 결혼생활에서 테드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동안 무시해왔던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어머니의 충고대로 행동한 결과 테드와의 관계에서 다시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로즈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앞으로의 결혼생활과 사회와 어머니의 관계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4. 잉잉 세인트 클레어 - 리나 세인트 클레어 : "호랑이 기질"

이 장에서는 잉잉이 어떻게 자신의 "호랑이 기질"(tiger spirit)(252)을 잃게 되었고, 자신의 딸 리나를 통하여 어떻게 자신과 딸의 정체성 찾기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잉잉은 중국에서 남편의 외도로 인해 뱃속의 아이를 유산시켰던 아픈 상처를 잊기 위해 오랫동안 침묵해 왔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호랑이 기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리나와의 소통까지 단절되었다. 그러나 다른 어머니 세대인 안메이가 그랬던 것처럼 딸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잉잉은 리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리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전해준다.

잉잉은 중국사회의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부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상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근처 우시(Wushi)에서의 어린 시절에 잉잉은 여성에게 억압적이던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활달한 성향의 아이였음을 알 수 있다.

우시에서 어렸을 때 나는 '리하이', 즉 거칠고 고집이 센 여자 애였다. 나는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이야기 솜씨는 기가 막혔고, 자그마한 몸이 아주 예뻤다.

When I was a young girl in Wushi, I was *lihai.* Wild and stubborn. I wore a smirk on my face. Too good to listen. I was small and pretty. (243)

여기서 '리하이'(厉害)는 중국사회의 젠더의 통념상 여자답지 않다고 여겨지는 여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려서 잉잉은 가부장적 젠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기질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야기 솜씨가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잉잉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호랑이해에 태어나 "호랑이 기질"을 가진 아이였다. 중국인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해는 열 두 동물의 특성과 자신의 본성과 기질을 연결시키는 관습이 있어서 중요하다. 호랑이의 해에 태어난 잉잉은 4년 동안이나 창궐했던 역병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잉잉은 호랑이의 해에 태어난 아이답게 호랑이처럼 강한 성격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어머니와 유모는 잉잉의 활달한 성격과 사내아이와 같은 행동을 꾸짖으며 수정하기를 바랐고 중국의 전통사회가 바라는 수동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교육했다. 특히 유모는 잉잉이 달의 선녀(The Moon Lady)와 비밀 소망에 대해 물어볼 때 아무 것도 요구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70).

"호랑이 기질"을 가진 잉잉이 좌절을 맛보기 시작한 것은 네 살이 되던 해인 1918년 중추절이었다. 잉잉의 가족들은 중국에서 제일 큰 호수 중 하나인 타이후로 뱃놀이를 떠났다. 잉잉은 이곳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성격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며 놀다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물가에까지 가게 되었다. 잉잉은 달의 선녀가 그림자놀이로 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녀에게 소원을 빌러 가지만 그곳에서 달의 선녀가 말하는 극중 대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통해서 중국 여성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다.

“여자는 음(陰)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둠과 강한 욕망을 품고 있지요.”
그녀는 슬프게 외쳤다.
“그리고 남자는 양(陽)이어서 우리 마음을 밝게 비쳐주는 진리랍니다.”

“For woman is yin," she cried sadly, "the darkness within, where untempered passions lie. And man is yang, bright truth lighting our minds.” (81)

달의 선녀 창오(嫦娥)의 동화는 선녀가 영원히 살기 위해 명사수 남편을 배신하고 서왕녀의 영생을 뜻하는 마법의 복숭아를 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면서 언제까지 달에서 헤매는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짧은 순간에 모든 세상을 잃어버렸고 되찾을 길이 없는 달의 선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고 느낀 잉잉은 이 대사를 듣고 절망감에 떨며 운다(81). 여기서 달의 선녀는 욕망을 품은 여성을 어두운 밤에 뜨는 달로 비유하고, 남성은 진리로서의 태양으로 음적인 존재인 여성과 대비시킨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전제로, 남자는 양으로 여자는 음적인 존재로 위치시킨 것은 그 당시 중국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억압받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영생할 수 있는 복숭아를 왜 남편만 먹어야 하는지, 그동안 달의 선녀와 부부로 살아온 명사수 낭군은 그의 부인이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었다고 아내에게 화살을 겨눌 만큼 잔인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명사수는 영생의 복숭아를 몰래 숨기기보다 부인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는 없었는가 말이다. 『조이럭 클럽』의 이러한 신화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가부장제의 권위 아래에서 남녀가 평등하지 않고 욕망을 품는 여성이 있다면 가차 없이 사회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빅아이이!!!』의 편집자인 친으로부터 중국문화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았다(Chin 11). 실제로 중국은 2007년 7월에 달 선녀인 항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달 탐사 위성 ‘창어1호’를 발사했다. 이것은 고대 신화 속 달의 선녀의 이미지가 텐의 소설에서처럼 탐욕스럽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잉잉은 더욱이 가족을 찾겠다는 소원을 빌기 위해 뛰면서 찾아간 곳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선녀가 가발을 벗고 남자가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고 가족이 잉잉을 찾았을 때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라고 말한다(82). 이것은 달의 선녀 이야기가 순수한 동화인줄로만 알았던 잉잉이 수동적이고 순종하는 여성의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한 남성들의 창작물임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인 순수함과 말을 잃어버렸음을 뜻한다. 이러한 잉잉이 리나의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를 알아차리고 중추절 이후 “어떻게 자신을 잃어버렸는가”(82)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6살이 되던 해 잉잉은 집안의 결정에 의해 첫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갔다”고 느낄 정도로 중국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원하는 여성상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다(247). 그러나 잉잉의 첫 결혼은 남편의 외도와 그로 인한 충격으로 뱃속의 아이를 낙태시키면서 그녀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실패하고 만다.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함부로 대하는 불합리한 문화 속에서 잉잉은 “호수 바닥에 있는 여자 귀신”(243)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상하이 근교의 육촌 집에 보내진 잉잉은 마치 죽어서 귀신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다. 상하이에서 10년을 지낸 그녀는 가게에서 시골뜨기처럼 일하다가 세인트 클레어를 만나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미국으로 오면서 잉잉은 구잉잉(Gu Ying-ying)이라는 이름 대신 남편에 의해서 베티 세인트 클레어(Betty St. Clair)가 되었다. 남편에 의해서 출생 연도도 1914년 호랑이띠에서 1916년 용띠로 바뀌어버렸다(104).

심지어 남편 세인트 클레어는 자신이 잉잉을 아주 끔찍하고도 말할 수 없는 어떤 비극적인 생활로부터 구출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잉잉은 자신의 의지로 아일랜드계 미국인과 결혼하여 백인 신부의 자격으로 미국으로 이민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류사회에서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하는 차별적인 태도로 인해 난민으로 취급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리나는 아버지가 “이민국에는 백인 시민들의 중국인 아내를 처리하는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104)고 말씀하셨다고 전한다. 그때까지도 미국인들은 중국인 여성이 백인 시민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백인의 신부로 입국하는 중국 여성들에 대한 이민법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잉잉의 놀란 표정의 사진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관문 역할을 한 샌프란시스코 만의 에인젤 섬”(윤성호 23)에서의 혼란과 좌절을 잘 보여주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미국으로 오면서 남편의 실수로 잉잉의 태어난 해가 바뀐 후로 잉잉은 더욱 더 자신의 “호랑이 기질”을 잃어갔다. 중추절의 경험 이후 잉잉은 이민국에서 자신의 이름과 태어난 해를 잃어버린 것처럼 자신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잃어버렸다. 미국에 왔을 때는 중국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를 완전히 지우고 살았다. 잉잉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았지만 영어가 익숙하지 못하여 남편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심지어 잉잉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표현할 수단조차 없었다. 잉잉은 미국에서 또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자신이 죽인 아들을 생각하며 정신분열증과도 같은 증세를 보인다. 남편과 딸에게 말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경험들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잉잉의 딸 리나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리나는 이런 것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중국 사람의 눈으로 보았다고 느꼈다(137). 매사에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던 리나는 옆집에서 일어나는 요란한 싸움 소리를 듣고 그 애가 죽도록 매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옆집 아이 테레사(Teresa)와 그녀의 어머니 소르시(Mrs. Sorci) 부인이 울다 웃다하면서 사랑의 고함을 지르는 중이었다(115). 리나는 옆집의 모녀를 통해서 이제껏 자신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변의 일을 봐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속에 희망을 떠올리고 그것에 매달렸다. 또한 부정적인 것을 보더라도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리나는 잉잉보다도 먼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해 깨닫고 중국에서 “가장 최악의 일을 경험”(115)한 어머니를 생각하며 혼백만 남아있는 잉잉이 자신의 실체를 되찾기를 원한다.

리나는 같은 건축회사에 다니는 해롤드(Harold)와 결혼했지만 그녀가 어렸을 때 가졌던 부정적인 사고는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롤드가 리나에게 사랑 고백을 했을 때, 리나는 활력 넘치던 자신감을 잃고 “해롤드같이 그런 대단한 남자가 어떻게 나를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지 얼떨떨하고도 아찔”(155)하게 생각했다. “과분한 행운이 빠져 달아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가장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156)을 모두 떠올렸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리나는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결혼 생활을 무작정 견뎌야 했다. 리나와 해롤드는 모든 것을 반반 나누는 결혼 생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활을 하고 있었다. 황정희는 “서양인 남편들은 동양인의 눈으로 보면 너무 인정머리 없고 냉담하여 밉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또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언제나 정당한 얘기만을 끌어 내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33). 그러나 부부가 공평하게 비용을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간과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 여성이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과 공헌들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리나는 해롤드가 건축 사무소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롤드는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결혼 생활의 비용을 반반씩 물리는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리나는 해롤드를 독려해서 건축 사무소를 독립하도록 했고 비용을 함께 투자했지만, 모든 일에 공정을 들이대는 해롤드에게 오히려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1세대 어머니들이 여성에게 억압적인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지만, 이민 2세대의 딸들 또한 여전히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리나는 자신이 받는 대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화도 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할지 몰랐다. 리나는 이런 상황이 중국인 어머니 밑에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란 탓이 아닐까 생각했다. 리나의 생각은 로즈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한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은 오리엔탈의 대상이 된 중국계 미국인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백인들의 오리엔탈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서술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리나의 친구 로즈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한 끝에 남편에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성향이 핏줄인 민족성과 중국 문화의 영향에서 기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장면이다.

로즈가 말했다.

“처음에 나는 이게 내가 중국인들 특유의 겸손함을 갖도록 키워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면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또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더불어 흐르기만 해야지, 파도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도 싶었지. 그러나 내 정신과 의사는 문제를 왜 내 문화와 내 민족성 탓으로 돌리느냐고 그러지 않겠니. [. . .]”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t first I thought it was because I was raised with all this Chinese humility," Rose said. "Or that maybe it was because when you're Chinese you're supposed to accept everything, flow with the Tao and not make waves. But my therapist said, Why do you blame your culture, your ethnicity? [. . .]" (156)

로즈는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비슷한 처지에 있던 친구 리나에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미국인이 중국인 혹은 아시아인들을 바라볼 때 갖는 이미지를 그녀 스스로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마치 중국 사람들은 겸손하고 큰 "파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사람들이라고 규정되어 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것은 로즈뿐만 아니라 리나에게도 적용된다. 리나 또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해롤드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면서 주류 미국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로즈의 의사가 지적했듯이 로즈의 문제는 온전히 중국 문화와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탓에 있지 않으며 리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리나가 나쁜 것들을 보고 인식하면서 항상 최악을 염려하는 것은 중국 문화의 특성이라기보다 어머니 잉잉의 모습이 반영된 개별적인 것이다. 리나는 잉잉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은연중에 어머니의 특성을 자신에게 내재화 시킨 것이다.

잉잉의 딸 리나는 자신의 어머니가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사전에 알아차리는 신비한 힘을 가지셨다"(149)고 믿었다. 그래서 리나는 어머니가 그녀의 신비한 능력으로 자신들의 결혼생활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실까봐 어머니의 방문을 두려워한다.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보신다. 나는 어머니가 꼭 나쁜 부분만 보시는 것이 화가 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 봐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사실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와 해롤드 사이가 어떤지도 틀림없이 아시리라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실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he can see all this. And it annoys me that all she sees are the bad parts. But then I look around and everything she's said is true. And this convinces me she can see what else is going on, between Harold and me. She knows what's going to happen to us. (151)

리나는 어머니가 나쁜 부분만 보셔서 화가 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짐작이 모두 사실이고, 어머니가 사건의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는 "그러한 원인들을 제거하려고 전혀 애쓰지 않았던 것을 한탄"(199)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리나가 느끼는 "화"는 사실은 그녀 자신이 이 결혼생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결국 잉잉은 딸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유리병이 깨지자 "왜 미리 방지(stop it)하지 않았니?"(165)라고 물었다. 사태가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왜 미리 손쓰지 않았느냐는 뜻이다. 잉잉은 리나가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를 바랐다.

잉잉은 결혼생활의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자신의 "호랑이 기질"을 잃고 살아왔고 미국에 와서는 입국심사에서의 인종차별과 언어의 장벽으로 가족과 원만한 의사소통의 부재 속에서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딸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호랑이 기질"을 풀어놓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아래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전통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나는 나의 과거를 한데 끌어모아 잘 보려고 한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나는 볼 것이다. 그 고통은 내 기질을 느슨하게 끊어 버렸지만, 나는 그 고통이 딱딱해지고 빛나고, 더 투명하게 될 때까지 내 손에 들고 있겠다. 그러면 나의 맹렬함, 나의 황금색 쪽과 나의 검은 쪽이 되돌아올 것이다. 나는 이 날카로운 고통을 가지고 내 딸의 두꺼운 피부를 뚫게 해서, 이애의 호랑이 기질을 풀어놓아야겠다. 그애는 내게 덤벼들 것이다. 이건 두 마리 호랑이의 천성이니까. 그러나 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이길 것이고, 그애에게 내 기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길이겠지.

So this is what I will do. I will gather together my past and look. I will see a thing that has already happened. The pain that cut my spirit loose. I will hold that pain in my hand until it becomes hard and shiny, more clear. And then my fierceness can come back, my golden side, my black side. I will use this sharp pain to penetrate my daughter's tough skin and cut her tiger spirit loose. She will fight me, because this is the nature of two tigers. But I will win and give her my spirit, because this is the way a mother loves her daughter. (252)

4장 2절의 제목인 "범띠 여자들"("Waiting Between the Trees")의 원문의 제목은 상처 입은 호랑이가 숲 속 나무 사이에서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과거에 고통 받은 기억을 다시 상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잉잉은 모성을 발휘하여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해 다시 그 상처를 꺼내어 딸에게 이야기 하였다. 상처가 딱딱해지고 빛이 나고 윤이 나서 반들반들해져 상처의 고통이 무뎌질 때까지 자꾸 상처에게 바람을 쐬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상처가 딱지를 벗고 새살이 돋아서 온전히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리나가 옆집의 모녀를 보던 날 밤에 기억했던 희망이면서 과거의 상처의 늪에 빠져 혼백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되돌아오시라고 외쳤던 목소리에 대한 잉잉의 응답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에서 꺼내어 반추해 보는 작업이 없다면 상처는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 이소희가 지적했듯이, "트라우마 응시하기는 잠재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변형될 수 있다. 응시하기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행동이다.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123)하기 때문이다. 잉잉은 적극적으로 "트라우마 응시하기"를 시도하여 이것을 딸과의 어려운 관계뿐만 아니라 리나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곤란한 상황까지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잉잉은 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 사랑하는 딸 리나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현실을 목격하고 딸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호랑이의 기백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잉잉의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뜨거운 열정과 도약을 상징하는 황금색과 꾀를 지닌 영민함의 검은색을 함께 가진 “호랑이의 기질”을 다시 찾기로 한 것이다. 리나 또한 본래 자신이 호랑이를 닮은 강인함을 갖고 태어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어머니에게 숨기고 남편과의 소통의 부재로 고통 받았으나 잉잉이 딸에게 “호랑이 기질”의 정체성을 물려주기로 함으로써 리나는 정열과 역동적인 도약과 영민함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헤쳐 나갈 열쇠를 건네받게 되었다. 잉잉이 리나에게 강인한 호랑이의 정체성을 물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리나가 자신의 힘을 되찾아 미국인 여성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결론

텐의 『조이럭 클럽』에서 네 모녀들은 세대갈등과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새롭고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정체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특히 텐은 어머니의 과거를 이야기를 통해 딸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딸들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수용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미국인으로 살아가게 될 방향을 제시하였다.

징메이는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훈육을 자신에 대한 간섭과 억압으로 오해하며 성장해 왔으나, 어머니에게 받은 옥 목걸이의 의미를 확인하고 쌍둥이 언니들을 만나기 위한 중국으로의 여정을 통하여 비로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중국적인 것을 포용하면서도 어머니의 희망을 담은 깃털의 역동성과 옥의 변화무쌍한 성질이 혼재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미국인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웨이벌리 또한 어머니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양면의 한쪽만을 바라봤던 편견임을 깨닫고 자신의 이중적인 코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안메이의 딸 로즈는 어머니와 자신 둘 다 남성의 권위가 여성보다 상위에 놓인 사회의 피해자임을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고 어머니의 권유대로 남편과 여성에게 불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사회를 향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는 사람으로 변화한다. 잉잉의 딸 리나는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호랑이 기질”을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결혼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중국계 미국인으로 살아갈 채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아시아계 미국문학은 세상의 나머지를 향한 우리의 목소리”(278)라고 언급한 킴의 주장처럼 텐의 『조이럭 클럽』은 이민 1세대와 2세대인 네 모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네 쌍의 모녀들의 목소리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재정의 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정체성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텐의 작품은 “미국사회가 소수의 입장과 상황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김혜진 133)을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처럼 텐의 『조이럭 클럽』에서는 1세대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매개로 현재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과 딸들 스스로 역동적인 정체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조이럭 클럽』의 딸들이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창조해 나가는 새로운 정체성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된 미국에서 오리엔탈리즘적 편견과 인종차별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 양쪽에 모두 속한 것 같으면서도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틈새공간'에 위치한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정체성이다. 텐은 『조이럭 클럽』을 통해 이와 같은 이민자 여성의 역동적인 정체성이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 용 문 헌

강영아. 「중국계 미국여성의 모녀관계를 통한 정체성 형성: 킹스턴의 『여전사』와 탠의 『 조이럭 클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6.

권혁경, 임진희. 「아시아계 미국문학 연구: 변방적 자아상의 표현」. 『현대영미소설』 5.2 (1998): 251-76.

김가희. 「중국계 미국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 『조이 럭 클럽』,『여행 왕 손오공: 그의 악보집』, 『전쟁쓰레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8.

김진경. 「『조이럭 클럽』에 나타난 여성론적 인식과 소수인종 의식의 발현 양상: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중심으로」. 『마크 트웨인 리뷰』 14.2 (2007): 27-49.

김혜진. 「재기억의 정치학: 미국 소수 인종 소설 속에 나타난 트라우마적 경험과 정체성 회복」. 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2016.

바바, 호미.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서울: 소명출판사, 2012.

박성수, 정명희. 「에이미 탠의 조이럭 클럽--'저항'의 텍스트로 읽기: 에이미 탠의 조이럭 클럽」. 『영어교과교육』 7.1 (2008): 33-54.

박혜리. 「에이미 탄의『조이럭 클럽』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어머니 세대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사이드, 에드워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서울: 교보문고, 2003.

윤성호. 『언더독의 글쓰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이소희. 「『조이럭 클럽』연구: 문화적 번역 매개체로서의 자연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2.1 (2000): 107-26.

-----. 「호미 바바의 "제3의 영역"에 대한 고찰—탈식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영미문학 페미니즘』 9.1 (2001): 103-25.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미움받을 용기』. 전경아 역. 서울: 인플루엔셜, 2014.

장정훈. 「동화와 차별화의 욕구 사이의 비결정성: 『여인 무사』와 『조이 럭 클럽』」. 『영어 영문학』 52.2 (2006): 245-7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재은. 「『조이럭 클럽』의 모녀관계 재정립과 정체성 탐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3.

텐, 에이미. 『조이럭 클럽』. 박봉희 역. 서울: 문학사상사, 1990.

황정희. 「*(The) Joy Luck Club*에 나타난 모녀간의 갈등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2002.

Du Bois, W. E. B. 『흑인의 영혼』. 심연희 역. 서울: 유페이퍼, 2015.

Kim, Elaine H. *Asian American Litera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2.

Kim, Min-Jung. "Orientalist Trappings and Cultural Reductionism in Amy Tan's *The Joy Luck Club*."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5.3 (2003): 108-33.

Lee, Kihan. "Amy Tan's *The Joy Luck Club*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sian-American Women's Bildungsroman." *Studies in Modern Fiction*. 5.2 (1998): 299-316.

Tan, Amy. *The Joy Luck Club.* New York: Penguin Books, 2006.

Collection @ chosun